

2024 새해 이렇게

정기명 여수시장

# 섬박람회 성공 준비·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실현 박차



###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미래 청사진 마련 화이트바이오·수소 특화단지 조성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선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3일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2024년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 등 역점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에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정 활동을 펼쳐 여러 분야에서 거뒀던 성과들로 여수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화합과 도약을 위해 신년 화두로 균형발전(群雁折軸)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작은 힘이라도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민과 한마음으로 여수의 100년 미래를 준비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섬박람회 개최 시기 변경을 지속 건의해 한여름에서 초가을로 변경하고, 행사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적극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행사 세부 계획 실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의 부지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부형사장인 남면 개도 간척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건설에 속도를 낸다.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다섯 개 만(灣)의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발맞춰 10년 뒤 여수시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2030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화이트바이오, 수소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며 “주산동 미래혁신지구 중심으로 한 여수국가산단은 우리 시 지속가능한 발전 견인차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대 여수 캠퍼스를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특히 여수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여수를 전남 제1의 역사·문화·예술 융합 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문화재단 출범도 앞두고 있다.

75세 이상에는 무료 버스를 지원하고, 복합문화교육 중심지가 될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방침이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인구성장 환경도 조성한다.

소제지구 공동주택 부지 선분양과 울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안을 통해 정부 사전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 화태·백야를 잇는 4개 교량의 기초공사 완료, 주탑 시공,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착공, 금오도 해상교량 투자심사 등 광역 도로 연결망을 구축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의 새로운 물결 위 희망의 빛을 함께 쫓아 올릴 준비를 마친 만큼 여수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활짝 열기 위한 힘찬 항해에 시민 여러분의 동행을 소망한다”며 “모두가 꿈꾸는 도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시 근로자 1510명에 상병수당 10억2000만원 지급

### 질병·부상 근로자 소득 보전 평균 지급금액 67만6338원

지난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벌인 순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1510명이 상병수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순천시의 1단계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510명이며, 총 10억2000만원을 받았다.

순천시는 이 기간 1568건 신청을 받아 96.3%에 달하는 1510건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일수는 14.9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67만6338원으로 집계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후 의료이용일수 모형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사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이다.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살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 기간 3일을 제외 후 입

원·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지급액의 60%인 하루 4만7560원, 최대 428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공석지사 상병수당 운영팀(061-750-04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고향사랑기부자 이름 새긴 ‘고흥애 전당’ 설치

### 시행 첫해 329개 명판 부착

고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고흥애(醵)전당’ (사진)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공간은 고흥군청 1층에 마련됐으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들의 이름이 실린다.

고흥군 마을 수를 뜻하는 515개의 명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시행 첫해에만 329개의 명판이 부착됐다. 329개의 명판에는 고흥 발전을

바라는 향우들의 염원이 담겼다.

이 밖에도 부모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자녀들의 사랑, 고흥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관계 인구의 응원 등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실렸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100만원 이상 신규 기부자는 새로이 명판을 부착하고, 기존 기부자는 상단에 연도를 달린 메달을 부착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든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해 고흥을 응원해주시고 기부해 주신 모든 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예우 시책 발굴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 기관단체장협의회 장애인 가구 소방시설 전달 구례군 기관단체장협의회(회장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구례소방서를 찾아 장애인 가구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꾸러미 100개(300만원 상당)를 전했다. <구례군 제공>

## 광양시 18~45세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광양시가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광양시립도서관은 오는 8일부터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진로를 지원하고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립도서관 정회원인 광양시 청년이다.

올해부터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나이

가 확대돼 본 사업에 18세부터 45세까지 도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도서 구입비의 50%(본인 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차례에 걸쳐 분할 도서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신청도서의 30%는 취업 관련 도서가 포함돼야 한다.

광양시립도서관은 매달 1일~20일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책은 광양시 인증 지역 서점에서 본인부담금(50%) 결제 뒤 받으면 된다.

올해 광양시 인증 지역 서점은 9개소이다. <광

양> 2개소(우리서점, 용강서점) ▲중마동 4개소(가람서점, 선릉백화점, 북뱅크서점, 하늘서점) ▲광영동 2개소(무지개서점, 피터팬서점) ▲금호동 1개소(금호서점) 등이 있다.

도서 수령 서점은 신청자가 누리집에서 직접 선택하면 된다. 도서관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정비해 신청·조회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책을 받을 때 1인 1회에 한해 본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은 지난 2019년부터 인식 조사를 벌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이 사업이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농촌인력지원 증개센터 확대 운영

### 농림부 공모 선정 3억여원 확보

곡성군은 올해 농촌인력증개센터 3곳,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1곳을 운영하며 농촌인력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로 인해 농촌인력증개센터는 1곳 당 8000만원,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1억원 등 총 3억3000만원(국비 50%)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센터 운영비와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 운송비,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등으로 쓰인다.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며 농촌 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곡성군 측은 기대했다.

농촌인력증개센터는 기존 운영 기관인 곡성농협·육과농협에 올해 석곡농협이 신규 선정됐다.

이들 센터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업 분야 내국인 근로 인력을 모집해 필요 농가에 알선·중개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곡성농협이 추진한다. 지난해 곡성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농협에서 고용해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간 고용에 따른 숙박, 식사 해결의 어려움 없이 농가가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 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노동력 적기 공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여수시,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여수시가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한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합검사 미수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차량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내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은 200여대다.

시는 오는 3월 운행 정지 대상에 예고문을 발송

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직권말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